

2차 비폭력트레이너 네트워크 큐시트

주제 : 비폭력과 젠더

흐름	내용		준비물	담당
도입 (20분)	1. 환영인사 2. 지난 시간에 결정한 워크샵의 원칙 공유 3. 오늘의 트레이닝 소개 4. 인사하기 게임		지난 시간 대자보	아침
소그룹 토론 (40분)	평화활동가를 위한 성인지적 대화	- 남/녀 따로 나누어서 진행 - 남성조 진행할 사람 필요		오리
비폭력게임 (20분)	어항게임	- 어항게임 소개 - 중요한 것은 이 게임에 함께한 사람들은 이 게임에서 얻은 것은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지만 개인의 신상을 발설하던가 구체적인 스토리를 밖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짐 - 연기할 사람 필요	시나리오	오리
영상 시청 (30분)	희망의 씨앗(Seeds of Hope)	- 상영하기 전 소개 희망의 씨앗은 삶과 정의를 위해 망치를 든 4명의 여성들의 이야기이다. 이 비디오는 1996년 영국에서 있었던 유명한 직접행동의 과정 및 이들이 마침내 무죄평결을 받고 감옥에서 풀려나기까지의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행동을 위해 함께 땀 흘린 사람들의 조직이자 운동 플라우셰어(plowshare)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4명의 여성이 영국항공우주산업(British Aerospace) 공장에 들어가 호크전투기를 파괴한다. 이 전투기는 동티모르 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로 수출될 계획이다.... - 상영 후 소감 듣기	영상	오리
마무리 (20분)	마무리 게임	마무리 게임 시작하기 전에 10월 정식 교육 일정 및 장소 잡기		

<어항게임 시나리오>

Q.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기쁘거나 자랑스러운 점은 무엇인가요?

A1. 솔찬히 누군들 이것거리가 좋아서 이따위로 박복한 팔자와 사회적 낙인을 가지고 살아가겠어요?? 별로 자랑스럽거나 기쁜건 없는게 사실인거 같아요. 그냥 죽지 못해 사는거지, 아주 누가 들으면 귀어라서 좋아서 팔짝 뛰면서 사는줄 알겠네요 ^^* 농담이구요 ㅋ 그나마 쥐구녕에도 별들 날 있다고, 자랑스럽고 기쁜 부분이 궁색하지만 코딱지만큼 있다고 한다면 나의 사회적 억압을 토대로 다른 타자와의 연대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장애인이나 동물, 외국인 노동자같은 다른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 즉 홀애비 심정 과부가 알게 되는 것처럼 사회적 억압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타자와의 연대를 고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그나마 저의 정체성이 윤리적인 행위로 나아가게 해준거 같아서 때론 고마워요. 만약 내가 귀어가 아니었다면, 나는 얼마나 더 무지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

A2.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귀어들의 아주 크리에이티브하고 에스테틱한 감수성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죠. 얼마전에 인터넷에서 우연히 “왜 유명 패션 디자이너 중에 게이が多い요?” 에 라는 물음에 “게이가 패셔너블한게 아니라, 패션이 곧 게이 아닌가요?” 라는 글을 읽고 선 뻥터진 적이 있었죠. 귀어들의 독특한 사회적 존재가, 귀어들의 감수성을 자극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패션, 영화, 문학 등 다양한 문화 예술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남들과 다른 그들의 창의적 시각들이 참 뜨르르한 거 같아요. 이름만 들어도 후덜덜한 돌체 앤 가바나 커플이나 크리스찬 디올, 이브 생 로랑, 조르지오 아르마니, 마크 제이콥스 같은 디자이너도 그렇고 프랑스와 오종, 존 카메론 미첼, 닐 조던, 구스 반 산트, 페드로 알모도바르 같은 역시 이름만 들어도 오금이 저리는 영화 감독은 물론이고 암튼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귀어들이 여러 분야에서 방구뽀나 끼고 있는거 같아요. 이점에서는 제겐 좀 친정집과 같은 귀어들이 자랑스럽답니다 ㄱㄱㄱ

A3. 개인적으로 귀어라서 가슴이 벅차오르거나 만사가 다 행복한건 아닌편인데, 사실 귀어가 마냥 행복하다면 그건 무의식으로 슬픔을 은폐하기 위한 조울증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나마 귀어라서 현재에 만족하는 점은, 조금 더 잘 살아야 겠다는 각오를 다짐하게 되는 점이랄까요. 그게 속물적으로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살아남는 전략이 되었던, 아니면 내 존재론적 고민을 바탕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철학적 고민이던, 자신을 좀더 채근하고 잘 살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같아요. 사실 굉장히 단순하고 천박한 예를 들어봐도 귀어인 저는 이성애자들 처럼 결혼과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에너지를 쏟지 않고 그 시간을 제 개인을 위해서 쓰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사회적 ‘젠더’ 를 바탕으로 획일화된 삶을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앓았던 반면에, 이러한 젠더의 피안에 있는 나님은 오히려 제 자신이 더 행복해지는 느낌인거죠. 역설적으로 행복하지 않은 저의 사회적 존재가, 행복을 위한 제 사회적 의식을 자극했달까요? 이점이 바로 귀어라는 정체성을 토대로 생겨난, 저의 행복비결인거 같아요. 귀어라서 행복아요 ^^*

Q.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겪었던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은 무엇이 있었나요?

A1. 오만가지 것들이 죄다 문제가 되는데요, 특히 짜증날 때는 남성중심, 이성애중심적인 문화랄까. 남자애들이던 여자애들이던 모인데서 항상 이야기하는 상대방의 성에 대한 음담패설들. 뭐 제가 음란한거라면 환장을 하기는 하지만 뭔가 배제당하는 듯한 느낌은 참 서글픈거 같아요. 게다가 티비에서 나오는 예능 프로에서도 뭔가 자기들끼리만 알콩달콩 시시덕거린다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제가 쿼어인걸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기존의 젠더 관습에 익숙한 사람들이 제게 그렇게 그런 기존의 젠더 관습대로 할때 좀 짜증이 나는거 같아요. 이를테면 “남자애가 뭐 그런걸 가지고 쪼잔하게 그러냐” 는 말을 하거나, 여성이라면 아주 공주처럼 떠받들고 잘대해주는 남자애들이 저한테는 과격하게 보통의 남자애들처럼 대할 때... 그리고 여자애들도 저를 소울메이트보다는 “남자들은 다 음흉하고 무식하고 변태야!” 라는 지아말로 더 무식하고 변태적인 프레임 가지고 저를 바라볼때, 저는 어느쪽 진영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쿼어같은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면 속에서 천불이 일고 패썹해서 잠도 안와요. 그리고 둘째로 특히 마음 놓고 연애를 할 수 없다는 점이 짜증나요. 뭐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은밀한 밀회를 해서 만나야만 하고.... 안그래도 서로 만나기 힘들고 사랑을 나누기 힘든 판국인데 무슨 묻지마 관광이나 박카스아줌마 만나듯이 불륜처럼 만나게 지랄맞은거 같아요. 뭐 한국이야 원체 홀룡하신 나라라서 이성애자들도 마음껏 길거리에서 스킨십을 하면 주위 사람들이 속으로는 부러우면서도 눈총을 주지만, 쿼어들은 같이 영화를 보기도 힘들고 밥을 먹기도 힘들고 손잡으면 린치당할꺼 같아요. 자본주의에서는 고객 차별화정책이 다양하던데, 쿼어 요금제나 쿼어 할인제 같은거 해주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거 아닌가요? 기업들이 이런 정책좀 써주면 자본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 할아버지라도 좋아할 자신이 있는데... 쿼어들이 찜질방이나 공원이나 비디오방이나 클럽같은 이미지랑 결부된 건 변태라서가 아니라 너님들 때문이라구요. 이 답답 송서방아.

A2. 명절같은 대소사가 정말 짜증나요. 친척들이 와서는 “예쁜 여대생이랑 연애 안하니?” 라고 물어본다거나, “며느리가 보고싶구나. 내 친구들은 전부 손주이야기 하던데...” 라고 말하는 우리아빠. 아빠가 좀 연세가 있으셔서 주변 친구분들은 전부 손주자랑 한다던데 저한테도 은근히 압력을 가하더라고요. 이럴때는 정말 숨이 턱턱 막혀요. 제 또래라면 명절 때는 누구나 짜증난다지만, 쿼어들은 정말 친척 어른들 주둥이를 확 오바로쿠 치고 싶을꺼예요. 명절이 짜증난다기보다는 명절로 대표되는 가족중심의 제도나 관습, 결혼이 짜증나는 거겠죠. 나이도 있는데 결혼에 대한 압력은 점점 조여올 꺼 같고. 이럴 때는 어디로 도망치고 싶어요. 제가 게이인걸 모르는 친구들도 “여자 친구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도 뭐라 말해야할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고... 결혼이 강력한 제도이며 의무라는게 조낸 짜증나요.

A3. 저와 제 애인이 레즈비언이라는 것 때문에 저희 네트워크 회의에서 얘기가 나왔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희가 어떤 이슈로 집회를 했었는데 그 날 애인과 제가 숨어서 뽀뽀하는 걸 우연히 회원 한 분께서 목격을 하셨고 그것이 팀장급 활동가에게 전해지면서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며 회의에 올라 간 것이라고요. 심지어 제가 이 회의에 참석해서 들은 것도, 이 회의에 참석한 활동가에게 들은 것도 아니고, 회의에 참석했던 활동가가 제 친구에게 이 얘기를 전해서 몇 번의 아웃팅을 거쳤을지도 모른 채 제 귀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원래부터 ‘여자가 어른들 앞에서 담배 피우는 게 꼴 보기 싫으니 숨어서 피워라’ 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말을 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나에게 반말을 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내 정체성이 들키면 위험하진 않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실제로 겪고 나니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 조직은 나와 같은, 혹은 다양한 이유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투쟁하면서 힘들 때 서로 북돋워 주고, 같이 신나게 놀 수 있는, 치열하게 투쟁하면서도 따뜻한 곳이기도 했어요. 그치만 또 굉장히 폭력적인 공간이기도 해요. 집회 대치상황에서 여성 활동가를 앞에 세워 ‘역시 여자들이 앞에 있으니 그림이 좋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곳은 성소수자활동가, 성노동자활동가, 페미니스트, 생태주의자 등 수없이 다양한 스펙트럼의 운동과 활동가들이 모인 곳임에도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Q. 본인과 더 효과적으로 활동을 함께하기 위해서 혹은 보다 힘이 되기 위해서 다른 참가자들이 알았으면 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A1. 퀴어들을 사실 배려해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 잘 이해하고 있어요. 한국은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조명도, 언급도, 인식도 하지 못해왔고, 있었어도 미봉하고 은폐해왔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관습과 풍토가 너님이 개념 없는 것에 대한 정당화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거슨 경기도 오산이에요. 이 국제화시대에 외국의 퀴어들을 너님이 모르는 바도 아니고, 홍석천 하리수 등장 이후로 그런 사람들이 실존하고 살아간다고도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그냥 특이한 취미를 가진 오덕집단들이 아니라 존재론적 고뇌를 하면서 고통 속에 살아간다는 것도 인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퀴어에 대한 젠더 혹은 섹슈얼리티 감수성을 배려해주는 게 인두겁을 쓴 인간이 지향해야 할 일인 것이겠죠. 물론 그 방법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역사사지를 해보거나 소통해보는 게 좋은 일인거 같아요. 퀴어인걸 배려하지 않고서 “남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있어요?” 라고 물어보기보다는 “애인분 있으세요? 애인분 어떠세요?” 라고 친근하게 다가간다면, 서로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될거 같네요. 혹은 “섹스할 때 어떻게 하세요? 언제부터 동성애자가 되었어요?” 라는 경천동지할 만한 호기심과 가십적인 물음을 묻는 넘은 안계셨으면 좋겠어요.

A2. “남성답다” 혹은 “여성답다” 거나, “남성은 이래야한다” 거나 “여성은 이래야한다” 라는 식의 젠더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는 발화를 하는 거는 좀 안 해주셨으면 해요. 그건 퀴어뿐 아니라 이성애자들도 마찬가지로 억압인 것이니까요. “날씬해야 여자지”, “돈이 많고 능력이 있어야 남자지” 라는 발언을 듣고 기뻐서 팔짝 뛸 사람들이 어딴가요? 너부터가 그런 말들이 거슬린다면, 왜 남한테는 그런말을 하나요? 특히 그런거로 인해 삶이 힘든 퀴어들한테? 그리고 “남성은 여성을 좋아하는 게 당연하다” 거나 “여성은 남성을 좋아하는 게 당연하다” 는 끈대같은 발언도 자제해주세요. 아무리 여성이라도 너님은 싫을꺼 같고, 아무리 남성이라도 그런 발언을 하는 개념 없는 너님은 싫어할꺼 같아요. 또한 동성애가 역겹고 더럽다는 너님의 그 역겹고 더러운 발상도 자제좀 해주세요. 털어서 먼지안나는 사람없고, 죄 없는 자만이 돌을 던지시라구요. 뭐 동성애가 죄도 아니지만요. 성적 취향은 개인의 자유예요. 그걸 니가 뭘데 다른 사람 좋아하라고 강요하는 거죠? 니가 A가 좋은데 거기에 반대해서 B좋아하라고 하면 그건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그런 미친

것이 어딴가요?

A3. 동성애자나 퀴어들은 “다른 존재” 이기 때문에 성가시고 귀찮고 배려해줘야하고 동정해줘야 할 존재라고 생각하는, 물에 빠진 생쥐가 고양이를 걱정해주는 듯한 그런 착각을 버려주세요. 젠더에 대한 억압은 인류 보편의 억압이에요. 너님이 스스로를 건전한 성관념을 지닌 이성애자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너가 나이 50만 먹어봐요. 누가 널 남성이나 여성으로 생각해요. 성적 소수자라고 생각하지... 우리 모두는 퀴어이고 성적 소수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즉, 독특한 성적 취향을 가진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하는게 아니라, 너가 누구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늙어서 퀴어가 되어가듯이, 우리 모두는 퀴어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세요.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마찬가지죠. 나이 50넘으면 누구나 장애인 아닝교? 암튼 그런 마인드를 갖도록 안되면 되게하세요. 그건 뭐 대단한 인권감수성을 갖거나 진보적 의식을 갖는거가 아니라 인두깍을 쓴 인간이 지향해야 할 길인 거겠죠. 그래요 안그래요? 내말이 틀려요?

이 장에 대한 소개

“남성들이 싸우기를 거부했을 때, 그리고 여성들이 찬성하기를 거부했을 때 전쟁은 중단될 것이다.

제시 월러스 휴건(Jesse Wallace Hugan), 전쟁저항자연맹(War Resisters League) 설립자”

소개



그림 1 여성을 위한 비폭력 트레이닝, 태국, 치앙마이, 2005

우리가 남녀 모두 전쟁과 부정의에 저항하는 투쟁에 함께 하길 원한다는 것은 얼핏 간단명료한 듯 보인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재능, 에너지 및 통찰력을 최대한 활용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조직할 것인지 어떻게 우리 캠페인을 만들어나갈 것인지 어떻게 비폭력행동을 위한 트레이닝을 할 것인지에 성별의식(Gender awareness)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젠더, 즉 우리 사회가 정의해 놓은 남성 및 여성의 역할, 남성성 및 여성성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배적, 공격적, 통제하는 성향의 남성성과 약하고 순종적이며 통제받는 성향의 여성성이라는 전통적 사회적 인식이 우리 모두에게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성별의식은 비폭력행동 및 캠페인에서 우리가 중단시키려는 부정을 기존과 똑같이 영속시키지 않도록 도와준다.

반군사주의 캠페인들에서 성별의식 및 젠더에 기초한 분석은 효과적인 전술을 만들어내는 데에도 역시 소중한 수단이 된다. 젠더는 모든 분쟁의 한 요소이다. 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 수는 있으나 남성성, 여성성의 서로 다른 생각들이 왜, 어떻게 사람들이 싸우는가의 중심에 있다. 군대시스템은 남성 및 여성의 역할에 관한 특정한 사고 및 가정에 근거하여 작동하도록 만들어진다. 만약 우리가 분쟁을 해결할 비폭력적 구조 및 시스템을 만들길 원한다면 우리는 젠더에 관한 새로운 가정 및 요구를 창출해내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 우리는 비폭력트레이닝에 성별의식을 포함하고 젠더 관점으로 캠페인 및 비폭력행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개념 및 연습활동들을 포함하였다.

젠더란 무엇인가

젠더는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남성 및 여성의 역할, 신념 체계 및 태도, 이미지, 가치, 기대 등을 말한다. 이것은 권력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일반적인 남성과 여성 사이뿐만 아니라 각 조직 내에도 마찬가지로 작동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는다. 문화에 따라 젠더에 관한 서로 다른 사고, 즉 어떤 행동과 어떤 존재 양식이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적당한지에 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젠더는 문화에서 문화로 달라지는 것 뿐만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혹은 특정 위기 상황에서는 같은 문화 안에서도 달라지기도 한다.

젠더(gender)와 섹스(sex)는 어떻게 다른가?

섹스는 남성과 여성 사이 자연적, 생물학적인 차이를 지칭한다. 이런 많은 차이들은 비교적 명확하고 고정적이지만 몇몇 생물학적 차이들은 그 스펙트럼을 가로질러 존재하기도 한다. 그러나 젠더는 주어진 사회 속 남성성과 여성성에 관한 문화적 이상, 신념 체계 및 기대에 의해 구조화된다.

젠더가 어떤 방식으로 권력 및 정의와 연관되는가?

많은 문화권에서 남성들의 경험과 관점은 표준으로 비춰진다. (만약 정의될 수 있다면) 이성애 남성의 행동이 기준으로 채택된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힘의 행사는 남성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남성은 가족, 공동체 및 사회의 리더로서 상징된다. 반면 여성들은 가부장적 뜻에 그저 따르는 사람이자 지원하는 사람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가정은 여성 및 소녀들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결정들에 자신의 목소리를 거의 내지 못해왔다는 의미일 수 있다. 또한 전통적인 역할을 따르지 않는 남성들은 대중적 비판에 직면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젠더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사고체계이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관한 억압적인 개념은 도전 및 변화가 가능하다.

어떻게 젠더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젠더에 관한 사회적 통념은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남성성은 많은 방법으로 소년들의 사고방식에 주입된다. 감정을 부정하고 육체적으로 강한 행동을 하며 다른 이들 위에 군림하거나 경쟁하는 것을 통해 그들의 가치를 증명하도록 하는 사회적 압력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회화는 모든 이들의 인간 존엄성을 약화시킨다. 남성과 소년은 종종 군복무에 대비해야 한다는 학대를 당한다. 전쟁 그 자체는 남성과 소년으로 하여금 생명을 죽일 것을 강요하기 때문에 남성에게 대한 젠더폭력이다.

소녀들은 종종 그녀들의 지성을 부정하도록 사회화 된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적당하고 순종적인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먼저 들어주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도록 강요되는 것이다. 수동적으로 조용히 부정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여성성의 징후로 보여질 것이다. 이러한 사회화는 인간 존엄성을 파괴하고 피해자화를 촉진시킨다.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보호는 전쟁을 선동하거나 정당화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전쟁 자체는 성폭력이 전쟁의 무기로 사용되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젠더폭력이다.

왜 평화운동이 젠더 문제를 다뤄야만 하는가?

젠더 관점은 평화와 정의를 위한 활동에 중요한 통찰력을 준다. 남성성 및 여성성에 관한 관념은 폭력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무력 분쟁을 지지하곤 한다. 평화시기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의 수위는 진정으로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가 어떤 것인지에 관한 중요한 지표이다. 만약 평화 및 정의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이 사회에 만연한 전쟁폭력의 전 영역을 잘 이해하고 그것에 도전하고 있다면 그들은 활동은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전쟁 중 젠더폭력의 생존자들은 젠더 정의(gender justice) 없이는 화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전쟁 중 남성과 소년들에 대한 성폭력을 둘러싼 침묵 또한 깨져야 할 것이다. 증가하는 여성의 군사화, 여성과 소녀들이 평화구축(peace-building)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술 및 지도력, 성별 역할의 기대(gender expectation)가 어떻게 남성들로 하여금 싸우도록 독려하는가 등 평화운동은 이러한 젠더와 전쟁을 둘러싼 문제들을 회피할 수 없다.

왜 우리의 활동에서 젠더 관점이 중요한가?

사회의 변화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은 종종 우리는 젠더에 관한 이러한 가정들을 내부화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배우거나 변화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해 버린다. 젠더 인지 및 조직 내부적 변화, 그리고 젠더 이슈에 관한 단체 내부의 역학은 사회의 구조적 폭력을 해체하는 역할을 하는 그룹에게 중요한 개인적, 조직적 민주화이다.

젠더 문제에 관해 활동을 하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 관한 문제이고 회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종종 그 이슈가 제기될 때 두려움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고 보다 많은 갈등 및 분열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한다. 이것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쉬울 때도 있다. 스스로를 독려하기 위해 우리는 다른 그룹들 및 운동들이 이 문제들을 제기하기 시작한 사례들을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국제화해위원회 여성 피스메이커 프로그램 (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Women Peacemakers Program (<http://www.ifor.org/WPP/index.html>))이 만든 자료를 재구성

한 것이며 평화와 정의를 위한 국제여성연대(International Women's Partnership for Peace and Justice (<http://www.womenforpeaceandjustice.org/>))의 트레이닝 매뉴얼을 좀 더 상세히 한 것이다.

평화와 젠더 문제의 상관관계에 관한 사례: 뉴프로파일, 이스라엘

평화운동조직이 어떻게 성별의식(gender awareness)을 평화운동 속에 포함시킬 것인가? 이것은 그들의 조직적 정체성 및 구조, 트레이닝 및 멤버들의 성향, 그리고 프로그램 전략의 개발을 통해 가능할 수 있다.

이스라엘 평화운동단체인 뉴프로파일(New Profile)은 스스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군인들의 나라에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페미니스트 여성 및 남성들의 그룹이다.' 뉴프로파일은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누구라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젠더와 평화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매우 명확하게 연관짓고 있다. 또한 단체장의 역할 및 모든 유급 활동은 활동가들끼리 돌아가면서 맡고 활동가들 사이의 위계를 피하는 것을 통해 전통적인 조직의 패턴을 무너뜨렸다. 뉴프로파일은 새로운 멤버 및 일반 대중을 상대로 많은 트레이닝과 교육 프로그램들(워크숍, 세미나, 청년 그룹들 및 컨퍼런스)을 진행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에는 어떻게 젠더와 군사주의가 이스라엘 문화 및 사회에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늘 포함된다. 단체는 또한 하루공부모임을 개최하는데 이것은 이 주제를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2007년에 진행되었던 한 하루공부모임에서는 군자료실에서 가져온 여성 군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의 여성징병 및 사회 전반의 일반적인 군사화에 대해 살펴보기도 하였다. 이러한 공부모임 및 토론 기회를 통해 뉴프로파일 활동가들은 문제분석 및 활동 전략에 보다 깊은 성별의식을 포함시킬 수 있었다. 뉴프로파일의 소형, 경량 무기 프로젝트(Small Arms and Light Weapons project)는 단순히 이스라엘 무기거래의 문제점 및 구조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러한 소형무기들이 개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이러한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뉴프로파일이 어떻게 '안전(security)'이라는 개념을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연구한다.

'뉴프로파일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는 “이스라엘 - 뉴프로파일, 다른 이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다 (→다음 페이지)”를 보라.

이스라엘 : 뉴프로파일의 사례 - 다른 지역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기

루쓰 힐러(Ruth Hiller)

1990년대 중반 이스라엘에서는 새로운 정치적 자각이 일어났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의 레바논 주둔과 이스라엘 병사의 죽음에 대해 반대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국 정부의 팔레스타인 점령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매일같이 많은 시위들이 주요 도로들에서 벌어졌고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당시 폴뿌리 지역 운동을 주도한 단체들도 있었는데, '4인 어머니 운동(Four Mothers)', '평화를 소망하는 여성들(Mothers and Women for Peace)', '위민인블랙(Women in Black)'이 바로 그들이다.

이즈음에 내 아들이 병역을 거부하기로 결심을 했고 나는 내 아들을 돕기로 마음 먹었다. 그래서 첫번째로 한 것이 내 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룹이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사회비판의식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마침 이웃 중에 활동가 한 명이 있었고, 곧 우리는 집에서 가까운 교차로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집회들에 나가기 시작했다. 그 집회에서 나는 한 여성을 만났는데 그녀는 시위대를 향해 우리가 좀 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난 그 다음날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녀는 나에게 이제 막 시작한 한달에 한 번씩 있는 공부 모임이 있는데 오겠냐면서 나를 초대하였다. 그 공부 모임은 중산층 그리고 중상계층의 (미즈라키(Mizrachi, 유태인이 주:시오니즘을 표방하는 종교 단체), 에티오피아인 혹은 팔레스타인계 이스라엘인에 반대하는 유럽계) 백인 여성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대부분의 여성들이 나처럼 무언가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녀들 중에는 평화운동에 이미 몸담고 있는 이들도 있었고,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이들도 있었다.

나는 이 공부 모임에서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는 비판적이고 여성주의적인 시각을 배울 수 있었다. 이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페미니스트 작가이며 평화와 인권을 위해 수년간 활동을 해 온 렐라 마잘리(Rela Mazali)도 있었다. 그녀는 우리가 세상을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준비해왔다. 이스라엘은 왜 군사적인 힘을 행사하는가? 이스라엘에는 왜 이토록 차별행위가 많은가? 군대 내 권력의 피라미드 구조와 이스라엘 시민 사회의 모습은 어떻게 닮았는가? 희생양을 만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여성 그리고 어머니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유대인의 유산은 무엇이고 그것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힘을 발휘하고 있는가?(그리고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더 많은 질문들).

그리고 우리는 배워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지역의 운동들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본 것은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을 끝장내기 위해 싸웠던 각각의 다른, 하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는 두 남아공 그룹의 활동이었다. 이 두 그룹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서로 상호보완하

며 동력을 얻는, 작지만 힘 있는 조직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우리는 또한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을 지탱하고 있던 징병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1983년 여러 병역거부운동 그룹이 모여 만든 '남아공 징병제 폐지운동' 조직의 사례도 공부하였다. 1985년, 백인들로 구성된 군대가 흑인거주지역에 파견이 되고 난 뒤 징집을 거부하는 인원은 무려 다섯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고 한다.(관련 사실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wri-irg.org/co/rtba/southafrica.htm>) 우리는 당시 군사주의 관련 연구를 위해 웰라가 읽고 있던 자료들을 바탕으로 남아공의 징병제 폐지 운동에 대해 토론하였다. 우리는 잭클린 콕(Jacklyn Cock)의 저서 '남아공에서의 여성과 전쟁(Women & War in South Africa)'으로 공부를 시작하였고 이후 웰라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꾸준히 이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공부를 지속하였다.

우리는 또한 자신들의 지위를 역으로 활용하여 인종차별철폐 운동에 비폭력의 방식으로 함께한 백인 여성 그룹 '검은띠 운동(Black Sash Movement)'에 대해서도 공부를 진행하였다. 그녀들은 검은 띠를 두름으로써 남아공의 인종주의에 역겨움을 표현했다. 그녀들은 거리의 나무, 기둥, 자동차의 안테나 등 잘 보일 수만 있다면 어디든 검은 띠를 매달았다. 이에 영감을 얻어 우리는 곳곳에 오렌지 색깔의 띠를 매달아 볼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를 본격적으로 실행으로 옮기지는 못했는데, 이 행동이 이스라엘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공의 '검은띠운동'은 이스라엘에서 1987년에 시작된 '위민인블랙(Women in Black)'의 모티프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들의 운동으로부터 우리가 배운 것은 따로 있었다. 그녀들의 운동에 관한 글을 읽다가 우리는 백인, 흑인, 인도계 여성들로 구성된 한 여성조직에 대한 내용을 접하게 되었다. 그녀들은 1999년에 이스라엘의 좌파 여성들과 함께 세미나를 준비했던 사람들이기도 하다.

과거 남아공에서는 네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들은 딱 세 명씩의 모임을 만든 뒤에 각자 흩어져서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새로운 모임을 갖는 식으로 활동을 전개하였다고 한다. 남아공 사람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꾸려가며 그들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징병제를 종식시킬 수 있는 논의들을 이어나갔다. 여기서 우리가 배운 교훈은 바로 이것이었다. 즉, 남을 가르치고 훈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평등하게 토론할 수 있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 말이다. 설령 상대방이 당신과 단 한가지 측면밖에 동의를 못 하더라도 그 한 가지에서부터 시작을 하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일대일의 관계 혹은 한 명이 다른 소규모 그룹을 만나는 방식은 매우 효과적이다. 물론 이와 같은 조직 방식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으며, 활동가가 되는 것 역시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중요한 점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더 깊은 관계들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렐라는 다음과 같이 기억한다고 했다. “우리가 처음 공부 모임을 시작했던 1998년 10월의 어느 하루, 나는 '남아공 징병제 폐지운동'에서 채택되었던 주요 원리들을 적어가서 짧게 발제를 했어요. 그 발제를 통해 나는 내가 발견한 그 단체와 우리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했지요. 이후에도 우리는 회의나 논의, 조직 등의 과정에서 종종 이 질문들(웁긴이 주, 유사점과 차이점)로 돌아가서 다양한 지점에서의 논의를 지속하였어요.”

돌이켜 보건대, 이와 같은 논의들이 우리 모임의 큰 주춧돌 역할을 해왔다고 나는 믿는다. 우리는 하나의 운동을 형성하려 했다고 보다는 함께 모여서 배우는 것을 더 간절히 원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언젠가 모임에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서 함께 논의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웠던 날의 경험은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우리 모임에서 징병제와 양심의 자유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내 아들이 평화주의자가 되기로 결심한 사실은 중요한 이야기거리 중의 하나였다. 몇몇 사람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너무 급진적이라고 느꼈고 얼마 후에 우리 모임을 떠나기도 했다. 하지만 초기 멤버 서른 명 정도 중에 열두명 정도의 여성들은 두 개의 공부 모임으로 나누어져서 지금도 뉴프로파일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2000년 8월, 뉴프로파일은 이스라엘 내 징병제 폐지 운동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의 민중봉기(인티파타)가 바로 한달 전에 시작되었고 이 영향으로 우리의 주장은 사람들에게 큰 공감을 받지 못했다. 최근에는 다시 징병제 반대 운동으로 돌아가서 '징병 이전을 생각하기'라는 이름의 운동을 만들어가는 중이다. 뉴프로파일은 징병제가 이스라엘 군사주의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믿는다. 설령 팔레스타인에 대한 점령이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스라엘 사회의 탈군사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뉴프로파일은 공부와 활동 사이의 균형을 적절히 맞추어 왔다. 우리 모임은 내부 공부 모임과 대중적인 포럼 두 가지를 다 운영하고 있다. 우리는 일년에 5회에서 7회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공부를 진행한다. 때때로 우리는 매월 있는 정기적인 세션에서 아주 세부적인 주제를 다루기도 한다. 이 때에는 초청 강연자를 따로 부르지 않고 우리 활동을 위해 다양한 논의를 나눈다. 하지만 정기적인 세션과 별도로 진행되는 공부모임들의 경우에는 강연자를 초빙하기도 한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그룹 멤버 중 특정 주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모임의 진행자 역할을 맡기도 한다. 우리는 좀 더 많은 주제들을 발굴하고 이를 집단적으로 배우고자 한다. 뉴프로파일은 그룹 안의 비위계성을 목표로 한다. 우리는 그동안 10년이 넘도록 별도의 운영진 없이도 조직을 잘 운영해왔다. 어떠한 것도 혼자 힘으로 그리고 분석과정이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어떠한 것도 하룻밤에 순식간에 변하지 않는다. 변화를 진정으로 도모하기 위해서는 끈질기게 노력해야만 한다. 이는 다른 효과적인 운동들을 공부해왔던 우리 공부 모임이 얻은 교훈이다.

평화활동가를 위한 성인지적 대화

활동명 : 평화활동가를 위한 성인지적(gender-aware) 대화

소요시간 : 30~45분

활동의 목적 : 평화단체 내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대화의 기회를 갖기 위해. 평화단체에서 발생하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긴장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평화단체 안에서 좀 더 편안하고 헌신적인 수준의 젠더 관련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활동 방식 / 촉진자가 유의할 점 :

I. 젠더, 갈등 그리고 평화구축에 관한 소그룹 토론

- 남녀 혼합의 소그룹으로 나눠 여성과 남성이 갈등과 폭력 상황을 받아들이는 서로 다른 방식에 대해 리스트를 만들어본다.
- 다음에는 여성과 남성이 평화활동에 참여하는 서로 다른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리스트를 만든다.
- 다같이 모인 자리에서 각 소그룹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질문한다.

II. 전체 참가자를 남성들끼리 그리고 여성들끼리 각각 구성된 소그룹으로 나눈다

- 각각의 그룹들에서는 그동안 평화 관련 활동을 하면서 다른 성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이 가지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
- 각각의 그룹들에서는 평화 관련 활동의 과정에서 다른 성과 함께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전략들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
 - 논의가 끝나면 각 그룹에서의 논의 내용들을 공유한다.
 - 남녀 한명씩 짝을 지어서 앞서 공유된 내용들에 대한 생각을 나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며 말을 하되 한 사람이 말을 하는 동안에 상대방은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열심히 경청을 하며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이 활동은 <여성의 눈으로 본 평화구축자료와 트레이닝 매뉴얼>(리사 셔크 편)에서 차용되었다. 다음 인터넷 주소에서 이 책의 모든 내용을 볼 수가 있다.

http://www.iiav.nl/epublications/2004/womens_peacebuilding_manual.pdf

or at <http://www.ifor.org/WPP/resources.htm>

어항게임

활동명 : 어항(fishbowl) 게임

소요시간 : 30~60분

활동의 목적 : 관찰하는 것을 통해 어떤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주제에 대해 깊은 토론을 유도하기 위해. 특정 상호작용을 유도하기 위해. 단체 내에서 어떤 이슈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활동 방식 / 촉진자가 유의할 점 :

- 큰 원 가운데 조그만 원(“물고기”)을 구성하고 몇몇이 둘러앉는다. “물고기”들이 얘기하는 동안 바깥의 원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바깥의 사람들이 안쪽의 “물고기”들을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게임의 이름이 어항이다. 가운데 몇 사람이 앉을 것인지는 시나리오 혹은 토론의 주제에 따라 다르다.
- 과제를 정한다. 토론주제, 역할극 시나리오, 평가를 위한 특정 이슈 혹은 활동 등.
- 정보를 더 얻기 위한 질문이라도 중간에 끼어들거나 물고기들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한다. 바깥의 관찰자들이 웃거나 서로 토론하는 것도 마찬가지.
- 토론을 위해 한 명의 “물고기”가 자신의 얘기를 마치고 바깥 원으로 이동하면 바깥 원 사람 중의 한 명이 그 자리에 들어와 토론을 계속할 수 있다.
- 토론의 종류에 따라 촉진자는 바깥 원의 사람을 안쪽의 원으로 초청해 다른 접근법을 얘기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 게임이 마무리되는 것 같으면 촉진자는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 촉진자는 바깥원의 사람들에게 방금 들었던 얘기 중에 중요한 점에 관해 요약해 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자원자 한 명이 그 내용을 대자보에 받아 적는다.
- 촉진자는 바깥 원에 있던 관찰자들에게 소감을 물어보고 “물고기” 스스로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진다.